

# 백화점 '고가' vs 대형마트 '실속'...설 선물 양극화

### 백화점, 1000만원대 와인·명품 한우 등 프리미엄 상품 인기 대형마트, 20만원 미만 실속 과일·한우·통조림세트 매출 견인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시장에서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백화점은 수백만원대 한우 상품과, 1병만 구매할 수 있는 1000만원대 와인 등 프리미엄 상품을 선보이는 반면, 대형마트는 '가성비' 상품을 중심으로 선 선물 판촉에 나섰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3사가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 매출을 중간 점검한 결과 축산은 30만~50만원대, 청과는 10만~20만원대, 수산은 20만~30만원대 상품이 각각 잘 팔렸다.

최근 2~3년 사이 백화점에서 꾸준히 강세를 보인 가격대의 선물세트 상품이 불량 속에서도 예외 없이 잘 나간 셈이다.

명절 선물세트가 가장 인기가 많은 축산의 경우 고가의 프리미엄 상품 판매가 특히 인기였다.

롯데백화점에서는 50만원대 로얄한우스테이크 세트 판매량이 전체 1위를 차지했고 현대백화점에서도 30만원대 한우 세트와 40만원대 한우구이 세트가 나란히 전체 판매 순위 1~2위에 올랐다.

신세계백화점에서도 40만원에 가까운 한우 세트가 판매량 상위권에 들었다.

백화점에서는 팬데믹(pandemic·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여파가 한창이던 2021년 이래 명절 선물세트 구매 단가가 10% 안팎의 비율로 상승했다. 고향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선물 구매에 들이는 가계 예산을 확대한 것이다. 엔데믹(endemic·풍도병화한 감염병)이 본격화한 지난해와

올해도 이런 추세는 그대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에 맞춰 백화점들은 고가 상품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고객 발길을 유인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다양한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먼저 '1++' 등급의 최상급 부위로 구성된 '한우비 명품 한우 스페셜'을 200만원에 선보인다. 또 선별한 6년근 홍삼의 뿌리 제품인 '정관장 홍삼 천삼 20지'를 한정수량으로 330만원에 판매한다.

최근 설 선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위스키와 와인 등 주류 선물세트도 프리미엄 라인업을 준비했다. 한 병 당 630만원인 '야마자키/하쿠슈 18년 리미티드에디션'과 119만7200원짜리 프리미엄 싱글몰트 위스키 '맥칼란 디칸디 2022 릴리즈'를 선보인다.

또 '샤또 르 팡' (724만원), 전설의 와인으로 불리는 '페트뤼스 2017' (1003만원)을 각 1병 수량 제한해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1++' 등급의 '프레스티지 암소 No.9 명품 GIFT(300만원)', '프레스티지 암소 No.9 특선 GIFT(150만원)'를 100세트 한정 판매한다.

반대로 대형마트에서는 중저가 상품의 인기가 압도적이다.

이마트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판매한 설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설 같은 기간 대비 19.4% 늘었다.

가격을 내린 한우세트와 사인머스켓을 활용한 과일 세트, 가격과 실용성을 강조한 통조림세트가 매출을 견인했다. 한우가 37%, 과일은 60%, 통조림은 29%씩 매출이 늘었다.

우선 한우세트는 전체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10만~20만원 사이 가격대 상품 매출이 147% 급증하며 대형마트 선물세트 '최강자'임을 재확인했다.

과일 세트는 가격이 급등한 사과와 배 대신 상대적으로 시세가 안정적인 사인머스켓 혼합 비중을 확대해 가격을 낮춘 게 주효했다.

햄류와 참치캔류가 대부분인 통조림 세트도 고물가로 명절 '집밥족'이 늘어나는 트렌드에 맞게 선물 수요가 꾸준하다. 특히 3만원대 세트가 인기를 끌며 매출이 56% 늘었다.

롯데마트에서는 10만원이 채 안 되는 실속 한우 세트와 과일 세트가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

5만원대인 중추 프레사인사과 (5kg)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2일까지의 예약판매 매출이 2배 늘었고 9만원대 한우 정육세트도 70% 증가했다. 1만원에 밑도는 김 선물세트 매출이 2배가량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홈플러스는 경기 불황이 깊어지면서 극가성비 수요가 높아졌다고 보고 올해 설 예약판매 상품의 67%를 3만원대 이하 상품으로 구성했다.

예약판매 기간 보리먹고자란돼지 BBQ 세트, 정성담은 표고혼합 세트 등 2만~3만원대 상품이 판매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밖에 4만원대 당도선별 사과세트와 전통양념 소불고기 냉동세트, 8만원대 LA식 꽃갈비 냉동세트 미국산 쇠고기 등 가성비 상품이 잘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오늘은 완전식품 '타조알' 요리 어때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본점 지하 1층 푸드에 비뉴에서 타조알을 선보이고 있다. 타조알은 필수아미노산과 단백질 등 영양소가 풍부하며 식감이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특징이다. 타조알 1개는 계란 한 판 정도의 양으로, 계란 요리처럼 찜, 말이, 스크램블 등으로 즐길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소외계층 온정 나눔 '사랑의 S-BOX' 후원



### 광주신세계, 8년째 진행

광주신세계가 올해도 어김없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랑의 S-BOX'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는 24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의실에서 '사랑의 S-BOX' 전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광주신세계 사회공헌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및 광주 서구청 관계자, 5개 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사랑의 S-BOX'는 광주신세계가 지역상생

위해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지난 2017년 시작해 올해로 8년째를 맞았다.

광주신세계는 광주시교육청, 광주 서구청, 서구 소재 5개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사랑의 S-BOX'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광주신세계가 마련한 기금은 생필품과 간편식사 등으로 취약계층 100여 가구에 맞출 패키지로 구성돼 전달된다. 광주신세계는 '사랑의 S-BOX'에 필요한 성금을 매월 500만원씩 1년 간 6000만원을 기부한다. 지금까지 총 4억800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

## 설 차례상 전통시장 28만원 대형마트보다 18.7% 저렴

올해 설 제수용품 구입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가까이 저렴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27만 8835원으로 대형유통업체(34만3090원)를 이용할 때보다 18.7% 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설 성수품 28개 품목을 살펴본 결과다.

aT는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인해 올해 사과·배 등 과일류의 가격이 상승했지만,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소고기(우둔, 양지)의 가격이 안정돼 전체 상차림 비용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설 대비 정부 할인지원 비율이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등 정부가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하면서 대형유통업체의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 농협 전남본부, 과일 라이브커머스 판매 불티



### 전체 매진 1000만원 매출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지난 23일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2024년 첫 라이브커머스 판매행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전남 광역농산물 브랜드 '상림에'로 판매중인 사인머스켓과 레드향, 키위혼합세트를 시중가격 대비 최대 44% 할인된 가격으로 한정 판매했다.

또 방송 중 구매인증 고객 20명을 선정해 정남진장농협의 '생표고버섯' 1kg을 사은품으로 증

정했다. 전남본부에 따르면 방송 당일 전 품목의 한정수량이 모두 매진되었으며, 약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박종탁 본부장은 "전남 광역농산물 브랜드인 '상림에' 명절 선물세트를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 전남농협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최고품질의 제철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